

# 전남도·지역 국회의원 국비 확보 총력

### 예산정책간담회...국회 증액·정책 현안 해결 협력

### 여수-남해 해저터널·대형레이저연구시설 등 논의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남 발전을 위한 내년 국고 예산 확보와 정책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도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영록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간담회를 열어 내년 국고 예산 확보와 당면 현안을 집중 협의했다.

간담회에는 김 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김승남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김원익·주철현·김희재·소병철·서동용·신정훈·이재호·윤재갑·서삼석 국회의원 10명 전원, 김갑봉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10월 시작될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정부예산

안 반영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증액할 사업과 정책 현안을 소개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33건이다. 주요 사업은 ▲여수-남해 해저터널 ▲추포-비금 국도 2호선 연결도로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부두 건설 ▲초강력 대형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증액)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치(증액)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증액)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등이다.

전남도는 또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 ▲전라선 고속철도 ▲해상풍력 지원부두·배후단지 개발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다

도해 갯벌 습지정원 조성 등이 예타 대상에 조기 선정되도록 요청했다.

이날 논의한 주요 정책 현안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대한민국의 유적 국가역량 결집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 ▲해상풍력 제도 개선·인프라 구축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국가 R&D사업 선정 시 지역균형발전 지표 반영 등이다.

김 지사는 "올해 1조7천830억원 규모의 전라선 고속철도, 국도·국지도 10개 지구 등 주요 SOC 국가계획 반영과 함께 여수·순천사건특별법, 한국에너지공단법,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2단계 재정분권 규약예산 지원 연장, 지역소멸기금 조성 등 전남 발전을 위한 성과가 많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7조5천억원의 국고가 반영됐는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신규 반영과 함께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전남 발전 핵심과제 32건, 지역 발전과제 25건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승남 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남 발전 전략에 공감을 표하고 "전남 국회의원들이 원팀이 돼 국고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령 제정 등 입법 활동과 전남 발전 정책과제에 대선공약으로 채택돼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남도는 내년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상황실을 운영하고 각 정당 지도부를 비롯해 상임위, 예결위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 “전남 안심관광지서 가을여행을”

### 도, 곡성 압록상상스쿨·장성 황룡강 꽃공원·순천만습지 추천

전남도가 깊어가는 가을 '가족과 떠나는 오붓한 행복 여행'을 위해 곡성 압록상상스쿨(사진), 장성 황룡강변 꽃공원, 자연생태의 보고인 순천만습지를 10월 전남 안심관광지로 추천했다.

곡성 압록상상스쿨은 섬진강과 보성강이 만나는 옛 압록초등학교 부지에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 등이 함께 꿈과 상상의 나라를 키울 수 있는 곳으로 지난 5월 문을 열었다.

연기, 댄스, 보컬, 유튜브 등 문화예술 분야 전문 직업체험부터 키즈카페, 카페 테리아 등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공간이다. 또 미니기차 547m 타기, 모험용 출렁다리, 짚라인 등 다양한 휴식 문화공간을 갖췄다.

장성 황룡강변 꽃공원은 강변을 따라 4계절 노란꽃과 나무가 가득하다. '엘로우시티' 장식담개 황화코스모스, 백일홍, 해바라기 등 노란꽃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다.

황룡강변을 시작으로 문화대교, 장미터널, 힐링정원, 장안교, 연꽃단지, 황미르랜드까지 이어지는 꽃길은 인생 사진의 핫플레이스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 순천만습지는 2006년 랍사르습지로 지정됐다. 39.8km의 해안선에 둘러싸인 21.6km의 갯벌, 5.4km의 갈대밭 등 27km의 하구 염습지와 갯벌로 이뤄진 갈대밭이 장관이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 근접 생활권에서 자연친화적 안전여행을 선호하는 것이 관광 추세"라며 "황금물결 들뜰과 청명한 가을 하늘이 조화를 이뤄 자연생태 관광자원이 풍성한 전남에서 가족·연인 등과 오붓한 안심 행복 여행을 즐기도록 방역 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컨벤션호텔에서 열린 '전남지역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 김원익·윤재갑·소병철·이재호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김승남·김희재·신정훈·서삼석·서동용·주철현 국회의원. <전남도 제공>

## 소병철 “의대 유치 위해 한목소리 내야” 광주시, 하반기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수

### 동·서 융합캠퍼스 설치 제안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30일 열린 전남도 예산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전남에 의과대 유치를 위해서는 융합캠퍼스 설치로 동서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 의료 환경의 열악함에 있어선 선수를 가리기 어렵고, 동부권의 경우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적 특성까지 겹쳐 중증의료체계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융

합캠퍼스를 설립하는 것으로 협력 추진해야 한다”고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이날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순천시가 비록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철도는 한 번 건설하면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순천시가 국토부에 제시한 의견에 대해 전남도도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태도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광주시는 오는 12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김장철을 대비해 공공 음식물자원화시설 하반기 정기보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1음식물자원화시설(150t/일)은 12일부터 21일까지, 제2음식물자원화시설(300t/일)은 12일부터 16일까지 각각 실시한다.

공공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부패도가 높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특성상 설비가 빨리 노후돼 주기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다.

이번 정기보수 기간에는 소모성 부품과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사전예방 점검

과 법정검사 등을 할 예정이다.

정기보수 기간에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보수를 하지 않는 공공시설에서 평상시 용량의 20% 늘려 처리하고 민간시설 2곳에 분산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일 최대 300t을 처리하는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은 광주지역 가정(소형음식점 포함) 발생량의 59%를 처리해 분산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수기간 ▲필요한 만큼 장비 ▲먹을 만큼 조리하기 ▲물기 제거 등 시민들의 생활 속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실천이 필요하다. /이종형기자

##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온라인 개최

### 10월5일 개막...매칭페어 등 다양

올해 미디어아트 작품 전시와 체험의 장인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은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30일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올해 '페스티벌'은 오는 5-11일 5·18 민주광장과 아시아문화전당 복합 5관 등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열린다.

기존 작가와 30개 전문 기업의 콘텐츠 등 50여 작품을 선보인다. 다만 문화전당과 광장에 설치되는 '미디어아트 캔버스', 본 전시, 기업 콘텐츠 전시관 등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즐길 수 있다.

대인예술시장, 예술의 거리 등에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전시, 융복합 문화행사, 콘텐츠 기업이 참

여하는 온라인 매칭 페어 등으로 일상 속 미디어아트를 즐기도록 할 예정이다.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되는 매칭 페어는 닷밀, 엑스오비스, 바론슨, 바이브테크, 이지워드, 지니소프트 등 국내 대표 기술 기업이 참여해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모든 행사 내용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즐길 수 있다. 매칭 페어, 라이브 토크 콘서트는 오는 4일까지 온라인 등록하면 참여할 수 있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도시답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다양한 작품들을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보고 즐기면서 미디어아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